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이제는 인천입니다 <b>2025 APEC INCHEON</b>
배포일자		2024년 6월 20일(목) 총 27매(붙임 포함)		
담당 부서	토지정보과	담 당 자	• 토지행정팀장 • 담당자	서정하 ☎440-4561 고경민 ☎440-4562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5월 인천 주택 매매가, 하락에서 상승 전환

- 매매가 4월 - 0.05%에서 5월 0.07%로 -
- 전세는 5개월 연속 전국 최대 상승 폭 기록 -

인천의 지난 5월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으며, 전세가는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.

인천광역시의 ‘2024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’에 따르면 인천 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4월 -0.05%에서 5월 0.07%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.

5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구별로 보면 중구 0.47%, 부평구 0.12%, 계양구 0.12%, 동구 0.07%, 남동구 0.07%, 서구 0.07%, 연수구 0.03%는 상승했다. 반면 미추홀구는 -0.08%로 하락폭이 확대됐다.

지난달 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0.47%로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. 구별로는 부평구가 0.92%로 가장 높고, 서구 0.60%, 계양구 0.55%, 연수구 0.44%, 남동구 0.41%, 중구 0.22%, 동구

0.09%, 미추홀구 0.06%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.

인천의 지가변동률 역시 3월 0.16%에서 4월 0.17%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, 특히 연수구 상승 폭은 0.27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.

또한, 주택매매 거래량은 3월 3,497건에서 4월 4,190건으로 19.8% 증가했으며, 구별 거래량은 서구 914건, 부평구 669건, 남동구 635건, 미추홀구 566건, 연수구 529건, 계양구 449건, 중구 213건, 동구 109건이다.

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“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, 매매는 중구·부평구·계양구 위주로 상승했고, 전세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지역과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상승세가 5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.” 고 말했다.

<별첨> 2024년 5월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